

# “회원사들에게 이익되는 첨단R&D사업 도출 및 사업화에 박차”

희망의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여러분과 광학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지면을 통해 새해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광학산업계는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환율급락,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러한 각종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수출 3천억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몇몇 협회 회원사들이 자랑스러운 수출탑을 수상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학산업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을 위시한 후발국들의 도전에 대응하는 일과,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이 우리 광학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향후 10년을 주도할 산업기술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 생산시스템 등 20개 산업분야의 78개 혁신주도기술 로드맵에 광학산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산업기술 로드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협회에서는 광학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책당국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광기술과 광학산업은 제품이나 장비를 첨단화시키는 요소기술이고 핵심부품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광학산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건의와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산업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세계 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때까지 우리 모두 뜻을 모으고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협회는 국내 광학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날까지 회원사를 돕고 광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협회에서는 금년에도 회원사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회원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산업기술로드맵과 관련, 많은 회원사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 광학산업계의 공통 애로 기술과 사업화가 가능한 첨단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희망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학산업의 원천기술인 정밀광학렌즈 및 박막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간의 국제협력사업, 국내의 전문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 참여사업을 발굴하여 회원사에 정부 보조금 수혜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학 및 사무기기 표준화사업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장벽을 허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협회의 얼굴인 「광학세계」 또한 새로운 기획과 참신한 내용으로 광학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업계의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때만이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회원사와 협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방향성을 갖고 전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광학기협회 회장 이 중 구